

# 성차별부터 폭력까지, 선 넘은 자극 웹툰업계, 매출 하락에 무너진 도덕성

**독자들 항의 빗발·불매 운동**  
경쟁 심화에 자극적 콘텐츠 생산  
사회적 책임보다는 매출 집착 비판  
유통화 감소 속 콘텐츠 질 하락 위기

웹툰업계가 연일 웹툰 작품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0월 네이버의 '지상최대공모전' 출품작 '이세계 풍풍남'이 성차별로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봄툰이 연재를 예고한 '역지사지'가 불법촬영, 성폭력, 수간 등을 내용으로 삼으며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웹툰업계의 경쟁이 심화하고 유료 독자들의 수가 줄어들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웹툰을 통해 매출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웹툰 플랫폼 봄툰이 지난 22일 작가 폴닉의 웹소설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웹툰 '역지사지'를 단독 공개하겠다고 밝힌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웹소설 '역지사지'는 동성애를 바탕으로 한 웹소설로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문제는 해당 작품의 주인공이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과 유포,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수간 등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 없이 태연하다는 데 있다. 봄툰은 이번 작품 '역지사지'를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활발하게 X(구 트위터) 등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알리고 있는 김모(32)씨는 "웹툰화 될 예정인 역지사지는 일부 마니아를 중심으로 구독이 일어나는 BL(남성 동성애를 다룬 장르)이라 네이버 웹툰 불매 때 보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 또한 심각하지만 미성년자 여성 등을 향한 성폭력의 수준은 일반적인 범죄조차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웹툰업계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작품과 다양한 편견을 담은 작품은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달 네이버 웹툰은 지상최대공모전 예선전을 통과한 작품



키다리스튜디오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봄툰'에서 공개될 예정인 웹소설 원작 웹툰 '역지사지'의 홍보 영상과 네이버 웹툰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일으켰던 공모전 예선 통과 작품 '이세계 풍풍남'의 한 장면. /웹처

이세계 풍풍남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세계 풍풍남은 주인공 남성이 아내로부터 다양한 착취를 경험했으나 또 다른 세계로 가서 엘프 여성들과 살아가는 내용의 웹툰으로 내용과 표현이 성차별적이라며 문제가 됐다.

해당 웹툰이 예선을 통과한 후 대대적인 네이버 웹툰 불매 운동이 일었고 실제로 유의미한 지표상 변화가 나타났다. 네이버 웹툰의 월간 이용자 수는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 2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지난 2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404만명으로 지난달 1일(455만명) 대비 11%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일(486만명)에 비해서는 16.9%까지 줄었다.

이세계 풍풍남은 결국 최종수상에 실패했고 지난달 22일 네이버 웹툰 측은 "최근 공모전과 관련된 이슈로 독자 및 웹툰 창작자 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웹툰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작품이 등장하는 데에는 업계 내 경쟁 심화 및 유료 구독자 수의 급감, 작품 검수 가이드 라인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24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올해 웹툰을 유료로 결제한 독자의 월평균 지출액 1000~3000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천~1만원 미만'이 22.8%, '3천~5천원 미만'이 18.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바에서는 5000~1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3%로 1위를, 1만~3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9.8%로 2위를 차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웹툰에 3만 원 이상 쓰는 고액 소비자 비율도 15.7%에서 5.6%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웹툰작가들의 작품을 검수하고 담당하는 PD인 A씨는 "현재 웹툰업계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태프들로 인해 어려움이 감춰지고 있다"며 "수준이하의 작품임을 모르지 않지만 실제 지표가 살펴보면 논란이 되고 문제적인 작품일수록 구독과 매출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내 검수를 가장 많은 단계로 구분하는 곳 또한 2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검수의 대부분은 오타와 불분명한 표현, 아동성에 등 극단적인 내용에 대한 감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SKB "AI와 대화하고 그림도 그려요"

Btv 잼, IPTV 업계 첫 도입

SK브로드밴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영어로 대화하는 서비스 Btv 잼(ZEM)의 '살아있는 영어'에 이미지 생성 기능 'AI드로잉(AI Drawing)'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아있는 영어는 영어 말하기 학습을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AI 원어민 캐릭터 '제플린'과 함께 파닉스부터 짧은 문장까지 학습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살아있는 영어에 챗GPT 3.5를 적용한 '살아있는 영어 프리토킹'을 선보인 이후 살아있는 영어의 이용자는 2.1배, 이용건수는 1.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제플린을 만든 에듀테크 기업 '아키핀'과 협업해 IPTV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로 영어 발

화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주는 AI드로잉 기능을 도입했다.

AI드로잉은 학습자 레벨에 맞춰 구성했다. 낮은 레벨 학습자는 주어진 문장을 따라 읽으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높은 레벨 학습자는 자유로운 단어 구사와 문장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업데이트에 한국어와 영어 중 어떤 말로 해도 알아듣는 한영혼용 음성인식엔진도 적용했다. 이용자가 제플린과 대화하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말해도 제플린이 영어로 알려준다.

이강희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 마케팅 담당은 "'살아있는 영어'는 아이들에게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집에서 무료로 제공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 KT, '3D 쇼룸'으로 스포츠 굿즈 생생 쇼핑

클라우드와 스캐닝 기술 결합

KT가 시·공간 제약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KT 스포츠 3D 쇼룸'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KT 스포츠 3D 쇼룸은 KT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과 시각 기술 전문기업 '비빔블'의 최첨단 스캐닝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쇼핑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3D 뷰'를 통해 상품을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3D 쇼룸에서는 내년 1월 21일까지 Kt 위즈, KT 소니북, KT 롤스터 등 스포츠 구단의 인기 굿즈와 한정 상품을 판매한다. KT 롤스터 굿즈 15만원 이

상 구매한 고객 선착순 20명에게는 프로게이머 데프트 선수의 한정판 키캡 세트를 증정하며, 구단 인스타그램 구매를 인증하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Kt 위즈 굿즈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5명에게는 Kt 위즈 선수 유니폼을 제공한다. 구매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Kt 위즈 선수 친필 사인볼을 증정한다.

김병국 KT 디바이스본부장 상무는 "앞으로도 국내 실력 있는 비주요테크 스타트업들과 협업해 가상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KT가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KT 스포츠 3D 쇼룸'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KT 스포츠 3D 쇼룸' 이미지. /KT

## 차세대 배터리 4대 핵심 기술개발 성과 공개

과기부, 이차전지 R&D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민관협약체 및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체는 정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정책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협약체에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삼성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이차전지 주요 기업과 전기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은 산업기술 동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이차전지 민관협약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향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한편,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이차전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과공유회는 산학연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된 연구 성과 발표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 가지 핵심사업 성과 공유도 이뤄졌다.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원천 기술개발사업, 차세대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사업,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등 진행사항이 발표됐다. /이혜민 기자

## LGU+, 데이터 인프라로 AI·빅데이터 혁신

KISTI와 '국가 연구 데이터 허브' 구축

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수도권 연구 데이터 허브를 조성한다.

LG유플러스는 KISTI와 국가데이터교환노드(NDeX) 구축과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NDeX는 민간·공공 클라우드 등 여러 네트워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데이터 대용량 교환에 최적화돼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부 및 연구망을 운영하는 기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 측

LG유플러스와 KISTI는 경기 안양시에 있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평촌 메가센터'에 NDeX를 구축한다. LG유플러스는 고성능 네트워크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 간 NDeX 상호 연결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KISTI가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할 경우 LG유플러스가 설계·구축·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AI 인프라와 KISTI의 초고성능 국가 연구망을 결합해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플랫폼 영역에서 힘을 합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